

민주당 후보들 강세 ... 野 현역의원 해볼만

총선 D-83
광주일보·kbc 여론조사
▶2·3·4·5·6면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자 대결구도의 경우 일부 선거구에서 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후보들을 앞서고 있는 있지만, 오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유권자들이 최소 48%에서 최고 70%대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와 kbc 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여야 격전지로 꼽히는 광주·전남지역 9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21대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나'를 묻는 질문에 각 선거구별로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최소 48.5%에서 최고 72.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조사 대상 9개 선거구는 광주에서 동남갑, 동남을, 서구를, 북구갑이며, 전남에서는 목포, 여수갑, 여수을, 나주·화순,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다. 이 가운데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48.5%로 다른 선거구에 비해 낮았고, 나주·화순 선거구가 72.9%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총선 정당 후보 지지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격전지로 꼽혔던 조사 대상 9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다. 특히 무소속 김경진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북구갑이 그동안 민주당 열세지역으로 꼽히면서 중앙당의 '전략공천' 설이 나왔지만, 민주당 조오섭 예비후보가 김 의원을 다자대결과 일 대일 가상대결에서 10%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당의 광주지역 전략공천 카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리얼미터, 광주·전남 격전지 9개 선거구 설문 조사
광주 전지역 민주당 후보 앞서
전남 일부 오차범위 내 접전
민주당 지지 표명 유권자 최소 48.5%에서 최대 72.9%

전남지역에서도 민주당 약세 지역으로 꼽혔던 목포와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에서 민주당 일부 후보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오차범위 내까지 따라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역 의원과 민주당 후보 간 일 대일 가상대결에서는 민주당 일부 후보들이 현역 의원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본선'에서의 대결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민주당 복당으로, 민주당 후보들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나주·화순 선거구에서는 현역인 손 의원과 신정훈 전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뒤늦게 경선에 뛰어든 김병원 문재인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이 오차범위(95%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에서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광주일보와 kbc 광주방송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광주·전남 9개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방법은 유선전화 40%, 휴대전화 60%의 RDD(무작위 전화 걸기·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표집 방법은 무선 가상번호 및 유선 RDD 표본 프레임 내 무작위 추출했다.

표본수는 각 선거구별로 최소 501명에서 최대 510명이며, 응답률은 각 선거구별로 5%~11%였다. 통계보정은 2019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 적용(링가중)을 적용했으며, 표본오차는 각 선거구별로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22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한복을 차려 입고 세배 연습을 하고 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힘차게 인사하는 어린이들을 보며 시민들도 올 한 해 힘차게 달려나가길 기원해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문학관 건립 사업 본격화

건축 설계공모 ... 연말 착공 2022년 개관 목표

1990년대 후반 첫 논의 이후 지지부진했던 광주 문학관 건립 사업이 문학관 건축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이르면 올 연말 공사에 들어가 2022년 개관이 목표다.

광주시는 “23일 공고를 내고 광주 문학관 건축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90일가량 공고 기간을 거쳐 4월 말에 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관 시기는 2022년 말로 광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문학관은 북구 시화문화마을(북구 각화대로 91) 일대에 171억원을 들여 건축

면적 2730㎡(약 820평),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선다. 상설·기획전시실, 세미나실, 창작실, 수장고 등을 갖추게 된다. 관람객 문학 향유, 신인 작가 창작, 시민 문학 체험 등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문학관 건립은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2008년부터 광주시가 추진했지만 입지, 운영 주체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표류했다.

광주시는 건립 추진위원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친 만큼 앞으로는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연말께 광주문학관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지역 문학인들의

숙원 사업으로 광주만의 특색을 갖춘 문학관을 건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는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문학관이 없는 도시였다. 건축 설계 공모로 문학관 건립 사업이 본격도에 오르면서 하드웨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문학관에 채워 넣을 자료 선정과 수집, 운영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학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설 연휴 날씨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행복한 설 연휴 보내세요

설 특집 32면 발행
24·27일 신문 쉽니다

설 연휴 TV 프로그램 24~27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촉촉하게 레이어드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플레그니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플레그니스토어: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